

번역가 H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상상마당에서 강의하던 2015년 즈음이었다. 번역가로서 나름대로 입지를 다진 나는 수강생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풀어보울 각오, 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강사가 되겠다는 열의를 품고 있었다. 그 열의를 차밀게 식별버린 것이 바로 H의 과제물이었다. 과연 내게 그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래전부터 내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문을 읽고 회원들이 번역문을 올리면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번역문을 읽리는 방식이다. 번역 J는 대개 번역문을 올릴 때마다 내 번역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회원이었다. 하지만 난아같이 옮은 지적이어서 마치 애단맞는 학생이 된 심정이었다. 어떤 번역가들은 번역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은 번역가로 대비하자마자 굽직한 역서를 내놓으면서 금세 이름을 알았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번역을 가르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번역 수업이란 절설부른 나무를 알아보는 일에 불과한 것 아닐까?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번역 저승'이란 게 있는 것 아닐까?

번역은 글쓰기와 비슷한 작업으로 본다면, 번역에 저능이 필요하다는 말은 글쓰기에 저능이 필요하다는 말 못지않게 터무니없을 것이다. 그런데, 번역에 정답은 없다는 말은 확실히 틀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게 번역은 청중보다는 담석에 기합다. 나는 눈앞의 문장에 정답이 있다고 믿고 그 정답을 찾을 때까지 고민한다. 물론 단언하는 없다. 정답은 숨겨져 있으므로, 번역가는 정답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문장에 대해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면에서 번역이라면 일종의 문제 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번역이라는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기억력. 기억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국어 단어와 문법을 기억하듯 꼬투리를 번역은 고사하고 드록애노조 애를 먹는다. 이런 장기 기억 이외에—작업 기억이라고 부르는—단기 기억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장을 걸게 늘어 쓰다가 앞뒤가 맞지 않게 끌었는 일, 즉 문장 청문을 허용시키지 못하는 일은 자신이 쳐 읊에 뛰어들고 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현상은 글보다는 말에서 더욱 두렷이 드러난다. 글은 앞으로 돌아가 확인하고 고칠 수 있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영영 흘러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망각도 필요하다. 자신이 쓴 번역문을 고스란히 기억한다면 회고를 할 수가 없다. 눈앞에 있는 문장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면 잘못된 문장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고할 때는 자신이 쓴 문장을 마치 처음 보는 문장인 것처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원고를 오래 묵혀두며 머릿속에 맑아졌을 때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가지 채기, 내가 떠나쓰기를 한 것은 이것이 '걸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는 일'이 아니라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번행생성

문법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문장은 명사구와 동사구로 가지를 치고 명사구는 관사와 명사로 가지를 치고 동사구는 동사와 목적어로 가지를 친다(실제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하다). 이것을 트리 구조, 또는 수형도라 한다. 즉, 영어 문장의 구문을 분석하는 일은 수많은 가지 치기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이 문장에 들어맞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가지 치기는 이렇게 분석한 문장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에도 동원된다. 영어 단어는 여러 기본 의미가 있고 그 기본 의미는 여러 한국어 단어로 표현된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만 통한단고 해서 옮겨온 번역이 될 수는 없다. strong tea는 '강한 차'보다 '진한 차'로 번역하는 편이 낫다. 한국어에서 단어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공기 collocation'라 한다. 그런데 악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와 공기하는 바 단어가 달라진다. 그러니 앞 단어의 한국어 대역어가 A1-A2, A3이고 뒤 단어의 한국어 대역어가 B1, B2, B3이면 번역가는 A1-B1, A1-B2, A1-B3, … A3-B3의 애를 가지 조합을 모두 따져야 한다. 여남은 단어, 때로는 수십 단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이라면 어이어마한 경우의 수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답을 찾아내면 속도가 번역가의 수입을 좌우한다.

공감 능력. 이것은 독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A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B라고 말했을 때 B가 A를 온전히 표현할 거라 기대하지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반드시 A가 떠오르리라 보장은 없다. 글쓰기나 번역의 초보자는 자신의 문장이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나타내리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끊임 없이 저지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다.

페틴 인식. 페틴 인식은 단락 인식이란 일간 무질서로 보이는 집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문장에서 페틴은 종종 문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문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가지 치기 경우의 수를 줄여 줄여준다는 것이다. 문체라는 페틴에 이숙해지면 문장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 사고력. 번역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재조립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원문의 시간적 순서나 논리 구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리성은 문장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밖에 언어 감각, 미적 감각, 말귀와 알아듣는 능력 등도 번역 지능의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지만 번역 지능만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번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풀이가 번역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를 다루는 전반적인 능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저자에 대한 예정보다 비판의식, 번역의 여러 테크닉도 번역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번역 지능은 대체로 타고나는 것일 테지만 일부는 후천으로 고장난다. 나머지 사람들도 경험과 성장을 통해 기를 수 있다. 어찌면 그 나머지들이 독자의 마음에 기닿는 무엇인지도 모르겠가. 노동성번역가